월드컵개막 축구화제 3題

한국팀 16강 진출 기원 해인사 15일 축구대회

강원 4개팀등 8개팀 참가
학인스님들 "시청각실서 응원"

"코리아 파이팅!, 해인 해인 파이팅!"

조계종 사찰 강원 가운데 최강으로 꼽히는 해인사 축구단에도 월드컵 열풍이 불고 있다. 매해 단옷날 선방, 청년회, 인근 마을 등의 축구팀들과 경기를 가져 온 해인사 축구단은 단오인 오는 15일 인근 군부대 및 대구 운불련팀을 비롯해 종무원팀, 해인사 청년회팀 등과 함께 축구대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경기는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해 대회와는 달리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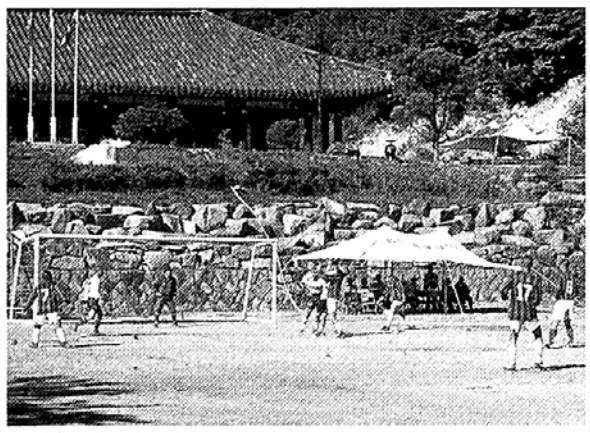
해인사 축구단은 참가 팀이 확정되는 대로 15일 당일 일주일 전부터 예선전을 갖는다. 현재까지 강원 4개 팀(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반)을 비롯해 선방팀, 종무원팀 등 8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해인사 축구단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 당시 주지였던 영암스님이 빈발하던 산불을 막기 위한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조직된 팀.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팀은 적수가 못될 정도로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 1996년 월드컵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최순호, 김종부, 박경훈씨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함된 연예인 올스타팀을 8대6으로 이긴 전적도 있다.

해인사 강원의 학인스님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 중 한국팀 경기에 대해서는 시청각실에서 단체 관람을 하며 응원도 펼칠 계획이다. 이는 한국팀 경기를 응원해온 해인사 강원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역시 강원 최고의 팀다운 '축구사랑'을 보여준다.

조계산에서 1시간 거리를 두고 나란히 위치한 조계총림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의 학인스님들도 지난 20년간 축구를 통해 교류해왔다. 아직까지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하는 자체 경기를 통해 한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한다.

한명우 기자



◇지난해 열렸던 해인사 축구대회의 경기 모습. 사진=월간 <해인>제공

◇홍명보

◇설기현

◇김남일

◇이을용

홍명보·설기현·김남일·이을용

불자 축구대표 4명 첫 승 견인에 최선

천재 리베로 홍명보, 한국의 히바우도 설기현, 중앙의 족쇄 김남일, 잡초 이을용. 포지션도 각각이고 플레이 스타일도 각각이라 이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 불자 축구선수라는 것. 이들은 하나같이 성실한 플레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실한 불자로서 꾸준히 신행생활을 해 오고 있다.

대표팀의 맏형으로서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홍명보 선수(34). 홍 선수는 일본 프로리그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며 팀동료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그라운드의 포교사' 역할을 했다. 또한 아내 조수미씨도 일본인 친구들을 서귀포 광명사의 템플스테이에 초청할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다. 광명사 주지 수보스님은 "홍명보 선수는 월드컵 국가대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도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김남일 선수(26). 김 선수의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자집안. 아버지 박재기 씨와 할머니 김봉순 씨는 매일 아침 16강 진출 기원 기도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 아버지 박 씨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사찰에 다닌 것이 인연됐는지 지금도 휴가를 나오면 어김없이 법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표팀 왼쪽 윙백을 맡고 있는 이을용 선수(28). 이 선수의 가족은 모두가 단양 구인사를 다니는 천태불자다. 법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을용 선수를 위해 구인사는 월드컵 폐막식까지 연등을 매달아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 프랑스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역전골을 성공시킨 설기현 선수(24) 또한 독실한 불자.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설 선수는 귀국해 고향을 들릴 때면 어김없이 강릉 관음사를 들러 기도를 하곤 한다.

듬직한 네 명의 불자 축구선수들이 있는 한, 월드컵 16강 진출은 꿈이 아닐 것이다.

강유신 기자

폴란드人 무상사 오진스님

"한국과 폴란드팀 결승서 만났으면"

"한국과 폴란드가 예선전을 함께 통과한 후 결승에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5월 30일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의 주지인 오진(44 · 사진) 스님이 총무 주불(36) 스님과 폴란드 선수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대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찾았다가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세례를 받았다.

폴란드 출신인 오진스님은 폴란드 언론을 비롯한 내외신 기자들의 줄 이은 인터뷰 공세에 "불교와 축구는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한 결과가 승리와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예선전을 함께 통과한 후 결승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솔직히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팀을 좋아하고 응원하겠지만 고국팀과 붙을 경우 솔직히 폴란드 팀을 응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삼보 사이버불교大 개원
복지포교사등 4개과정

삼보불교대학이 5월말 사이버불교대학(www.sambobuddha.org)을 개원하고,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삼보사이버불교대학 개원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 인터넷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반 포교사와 장의포교사, 군종포교사, 복지포교사 등 4개 과정이며, 온라인상 이론 강좌와 오프라인의 연수로 진행된다. 일반포교사와 장의포교사 과정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등 12과목, 군종포교사와 복지포교사 과정은 5과목으로 편성된다.

교수진은 성본스님 · 정병조 · 권탄준 등 동국대 교수와 윤이흠 서울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02)943-2858

박봉영 기자

637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종합관리대책 발표 비닐하우스 등 취약건물 이전

6월부터 전국 637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5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조건부신고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 비닐하우스 · 가건물 등 취약시설은 이전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6~7월 두 달간 신고접수를 받고 시설 개 · 보수 비용, 인력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2 · 3급으로 돼 있는 시설장의 자격요건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이 조건부로 신고할 경우, 시설수용인원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설 개 · 보수비용과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유예기간 내 정식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과장은 "종교계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정부의 양성화 대책수립 단계에서 먼저 종교계 사회복지단체와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재가자 주말선방인 곡성 태안사 열린선원 전경.

재가자 '열린선원' 개원
곡성 태안사

구산선문중 하나인 곡성 동리산 태안사 봉서암에 재가자 주말선방인 열린선원이 개원한다.

태안사 열린선원은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나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열린선원장 무공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선풍진작을 위해 선원을 개원하게 됐다"며 "참선에 뜻있는 불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유스럽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061) 363-8896.

김원우 기자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7일 회향식

17개월만에 개금불사 완료, 점등법요식도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지명)는 청동미륵대불의 개금불사를 마치고 '민족화합 · 평화통일 · 월드컵 성공 기원을 위한 금동미륵대불 회향법회'를 7일 오전 11시에 봉행한다. 법주사는 지난 2000년 12월 약 33m 높이의 불상에 0.003㎜두께의 순금을 입히는 개금불사에 나서 17개월만에 불사를 완료했다.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경과보고, 지명 스님의 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회에 앞서 오전 9시부터 10시 30까지 점안식이 열리고, 법회 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회향기념 축하공연과 10만등불사 점등법요식이 열린다.

여수령 기자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寺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틈틈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